



땅에 발붙인 건축, 스테이 아키텍츠

이들의 작업은 주위 환경의 맥락을 읽어내는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케 한다. 공간이 생겨날 지역의 정서와 공간의 용도 등 주변부의 맥락을 세세히 읽어낸 뒤 현실적 기능을 쫓는 스테이 아키텍츠의 작업은 그야말로 땅에 발을 붙이고 곧게 선 건축이다. **editor** 박민정 **photographer** 김민은

마포구라도 모든 지역이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아니다. 변화가 사이에서 둔 성산동은 주택가와 꼬마 빌딩이 웅기종기 모여 있어 꼭 소도시의 마을 같은 인상을 풍긴다. 혹은 마포구 내 '가성비의 동네'라고도 한다. 비교적 저렴한 세에 고즈넉한 분위기와 힘한 동네로의 접근성까지 허락된 곳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젊은 디자이너와 건축가, 아티스트들이 성산동으로 빠르게 모여들고 있다. 젊은 부부 건축가가 이끄는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 '스테이 아키텍츠' 역시 그중 하나다. 얼마 전 이 골목 한쪽에 있던 오래된 꼬마 건물이

새 단장을 마쳤다. 막 세수를 마친 맑은 얼굴처럼 보이는 단정한 파사드와 자투리땅에 자리한 들뜬, 미끈한 기동만 봐도 예사 건물은 아닌 듯하다. 이곳은 스테이 아키텍츠의 새 사옥이다. 6층 규모의 건물엔 층층이 디자인 사무소가 세 들어 있고, 5층과 6층은 스테이 아키텍츠의 사무실로 쓰인다. 스테이 아키텍츠는 'SNS에서 스테이 공간 좀 찾아봤다'는 사람들, 그리고 자칭 타칭 '좋은 공간 수집가들' 사이에서 특히 유명하다. 빈티지하고도 평키한 무드의 단독주택을 구현한 '씨니 사이드 업', 간결한 디자인으로 인기

마포구 성산동에 자리한 스테이 아키텍츠의 사옥. 홍정희, 고정석 공동소장은 5층과 6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벽면에 걸려 있는 홍정희 소장의 어머니 도애리 화백의 작품이 공간에 생기를 더한다.





1.5 회의실이자 욕상 정원으로 꾸민 테라스가 있는 6층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2.3 스테이 아키텍츠의 사무 공간에는 이들의 일과 취향이 묻어나는 자재와 소품들이 늘어서 있다.
4. 목업을 제작하는 용도의 책상 한쪽. 마치 공예가의 작업실처럼 보인다.



4



를 누리는 ‘호미양양’, 개량 한옥의 현대적 해석이 인상적인 ‘소여정’까지 주 거 공간과 상업 공간을 넘나드는 스테이 아키텍츠의 포트폴리오는 섬세한 건축 설계와 인테리어, 브랜드까지 꼼꼼하게 수놓은 그들의 결과물로 가득 하다. 이토록 다양한 스타일을 구사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찾는다면 자연스럽고 편안한 공간이라는 점. 홍정희, 고정석 공동소장이 만든 공간은 소위 ‘힙’한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자극적이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또는 콘크리트 면벽으로 둘러싸인 차가운 공간의 대척점에 있다. 목재와 석재, 패브릭을 적절히 사용하고 자연의 채광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 일례. 부드럽지만 강렬한 스테이 아키텍츠의 결과물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Q 작업하신 모든 스테이 공간이 이른바 ‘스케팅’으로 유명합니다. 두 소장님의 스타일, 감각이 반영된 결과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웃음). 공간을 만들 장소, 즉 지역성과 공간이 지닌 성격에 따라 설계와 마케팅 전략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매년 다른 콘셉트의 결과물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디자인에 대한 선호보다는 스테이 아키텍츠가 공간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해나가는 스타일이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해주세요.

Q 건축가가 마케팅에도 신경을 쓴다고요? 경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공간이야 아니까요. 공간을 만들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건축가에게나, 건축주에게나 마찬가지죠.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간에서 이리저리한 건축 철학을 논하는 건, 저희로서선 중요한 키워드를 빗겨간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건축가는 건축주와 협업하며 타깃의 설정을 논하고, 적정 수준의 금액과 서비스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당연히 잘해야 하고요. 그런 기준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대하고 있어요. 현대의 건축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기물, 음악, 무드, 마케팅 모두를 조율하며 클라이언트가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Q 올해 완공된 6층 사옥은 직접 건축주로 나선 프로젝트였죠. 어쩌면 스테이 아키텍츠가 성공했다는 증거라고 봐도 될까요? 절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직접 건축주가 된 게 아닙니다(웃음). 저희는 더 단단해지기 위해 초기

비용을 많이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축 스튜디오는 일이 아주 많을 때도 있지만 없는 기간도 있어요. 그런 때에도 회사를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모를 확장해 나갈 예정인 스테이 아키텍츠의 경우 오너가 안정적인 자산을 지녀야 회사와 직원, 그리고 우리 두사람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Q 그렇다면 사옥 건축은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결정이었네요. 더 큰 의미에서는 일종의 실험이기도 했어요. 건축뿐 아니라 브랜딩과 마케팅을 함께하다 보니,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려고 해요. 건축주의 대출 상황, 공간이 위치할 주변 환경 같은 것들이요. 판에는 충분히 고민했다 생각해도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요. 직접 경험해보니 확실히 다르더군요.

Q 건축주가 되어보니 어땠던가요? 매일 과정에서 기존의 세입자들과 미묘한 감정적 마찰을 겪거나 구청에 허가를 구하는 문제, 또 건물에 첫 세입자를 들이고 매일 건물을 돌보는 문제까지 알게 됐죠. 더 현실적인 건축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큰 계기가 되었다고 봐요.

Q 이를테면 철학적 담론을 이야기하던 문과생에서 알고리즘을 잘 만드는 이과생으로 전환한 거군요. 그렇게 봐도 좋겠네요(웃음). 건축가로서 유니크한 건물을 만들어서 유명한 잡지에 실리고,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물론 성공이에요. 근데 저희는, ‘오랫동안 사업성이 유지되는 공간’, ‘동네와 어우러져서 오랫동안 기능하는 건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로 했어요. 그게 지금의 스테이 아키텍츠가 지향하는 바죠.

Q 스테이 아키텍츠의 이런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한 케이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얼마 전 작업을 끝낸 경주의 스테이 공간 ‘소여정’이라고 생각해요. 도시의 정서를 고려해 건축적 형태와 한옥이라는 콘셉트는 유지하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이때 고급 스테이라는 콘셉트를 위해서 비치 할 가전제품과 어메니티의 종류를 고민했어요. 호텔에 가까운 공간이자, 누구든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취사 가전 외엔 과감히 배제 했어요. 그 대신 어두운 조도와 목재, 석재를 이용하고 탁 트인 공간으로 구획하고, 공간에 흐를 음악과 향을 직접 컨설팅했어요. 결과적으로 누구든 찾을 수 있으면서도, 본래의 콘셉트를 지켜낸 공간이 된 거죠.

Q 앞으로 선보일 프로젝트가 궁금합니다. 개인 클라이언트와 서촌의 낡은 한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단지 새로 생긴 공간을 넘어, 동네와 오래도록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구획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마케팅과 브랜딩 영역뿐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전시 기획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 공간에서 전시를 함께할 작가들을 만나는 중이에요. 건축은 단지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님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면서요. ■

“저희는, ‘오랫동안 장사가 잘되는 공간’, ‘동네와 어우러져서 오랫동안 기능하는 건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로 했어요. 그게 지금의 스테이 아키텍츠가 지향하는 바죠.”



5